

“전주천 · 삼천 하도정비사업 하천법 위반”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시 전주천 · 삼천 대규모 준설 · 버드나무 벌목 · 법률 · 조례 등 위반 지적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8일 전주시청에서 전주천과 삼천 재해예방 하도 정비사업이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시 조례를 위반했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전주천의 생태학살은 버드나무에 그치지 않았다. 전주시는 23년 1월부터 전주천과 삼천에서 재해예방 하도정비사업을 하고 있다. 두 하천에서 24톤 트럭 1만3,000대 분량인 15만 9,611㎥ 토사를 파내고 있다. 모래톱이 파헤쳐지고 물가의 버드나무와 물고기 새, 갈대군락을 잘라냈고 토종 물고기와 멸종위기 야생동물, 물가에 사는 새의 서식지가 파괴되었다”고 주장했다.

먼저 하천법은 하천의 모든 공사와 유지관리는 ‘하천기본계획’ 내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전주시의 대규모 준설과 벌목은 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2항 하천공사 시행계획은 ‘하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되어야 한다’를 위반했다”고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8일 전주시청에서 전주천과 삼천 재해예방 하도 정비사업이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시 조례를 위반했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적했다.

이어 “또한, 하천기본계획에서 수립한 계획과는 정반대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천관리청인 전라북도의 허가나 승인, 보고도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하천법 제30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2항 위반이다”고 말했다.

셋째,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제3조(유지·보수등의 계획 수립) ①항에 따라 하천 유지·보수 등의 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이에 대한 계획 없이 하천정비사업을 진행했다”고 한다.

넷째,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따라 하천구역

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만㎡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들 하천은 삼천만 하더라도 21만 3,892㎡이므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규모를 훨씬 초과, 당연히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다. 시는 3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삼천 하도 정비 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놓고도 협의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가 “환경부의 유권 해석을 받았다고 하나 하천관리청과 승인 여부에 대한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지침을 확대해석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들은 “전주시 하천 관련 정책 시행 및 사업추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자문 및 협의 활동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전주시 물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조례’를 위반했다”며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분노한 시민들의 뜻을 모아서, 전북도에 주민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김욱기기자



전주시는 지난 27일 청년이음전주 5층에서 단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기 청년희망단’ 발대식을 가졌다.

제8기 전주시 청년희망단 ‘출발’

발대식 갖고 청년정책 제안 위한 본격 활동 돌입

전주시는 지난 27일 청년이음전주 5층에서 단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기 청년희망단’ 발대식을 가졌다.

제8기 전주시 청년희망단은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을 거쳐 만 18~39세의 직장인과 자영업자,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다양한 계층의 청년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청년의 목소리 전주의 새로운 멜로디” 슬로건으로 올 연말까지 활동하며 각계각층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청년정책을 전주시에 제안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날 발대식에서 청년희망단 단원들은 위촉장을 수여 받고, 청년희망단 활동에 대한 결의문을 낭독하는 등 청년희망단 단원으로서 책임과 적극적인 행동을 다짐했다.

단원들은 앞으로 팀별 수시 회의 등을 통해 지역 청년의 문제를 발

굴·조사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맞춤형 청년정책을 설계하게 된다. 또한 청년정책 멘토단과 연계해 정책발굴 지원을 받으며, 실효성이 높은 청년정책을 제안해 전주시에 제안할 예정이다. 시는 청년희망단이 제안하는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시정에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제6기부터 청년희망단 활동을 지속해 온 한 단원은 “청년희망단 활동을 통해 지역에서 청년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꿈꾸는 전주를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청년은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세대 간 공존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의 미래이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청년이 찾고 싶은 전주, 청년이 머물고 싶은 전주, 청년이 살고 싶은 전주를 만들기 위해 지역의 미래인 청년들과 정책을 함께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기자

“완주자연지킴이연대는 사이비 환경단체... 모든 조치 취할 것”

대승불교 양우중 삼방사, 불법시위·허위주장 따른 피해 호소

대승불교 양우중 삼방사는 28일 완주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완주자연지킴이연대의 불법시위와 허위주장에 따른 피해를 호소했다.

삼방사 심정욱 대표는 “완주자연지킴이연대(이하 완지킴)는 사이비 환경단체”라며 “이에 삼방사는 앞으로 완지킴을 상대로 법정대응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지난 3년간 완지킴은 완

경운동을 핑계로 매주 삼방사 앞에서 공갈미수, 특수폭력, 불법시위 등 다양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최근 사례로 지난 3월 4일 완지킴 S 전 대표가 공갈미수로 검찰에 기소됐고, 지난 2월26일 완지킴 회원이 삼방사 경내에 침입해 여신도를 폭행한 사건으로 특수폭행죄로 검찰에 기소됐으며, 지난 3월 13일에는 완지킴 시위가 불법 시위라고 밝혀져 집시법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됐다는 자료를 내놨다.

심 대표는 “완지킴이 삼방사에 대해 무분별한 비난과 거짓주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완지킴이 제기한 환경오염문제에 대해 수차례 조사와 검증을 통해 그 주장이 근거 없음을 입증했는데도 불구하고, 완지킴은 주장을 바꾸며 시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또 “구제마을 주민들과의 상생협약을 맺음으로써 완지킴으로 인한 오해를 풀고 상생하는 관계로 발전했다”면서 “상생협약에는 마을주민

의 80% 이상이 찬성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위반대 결의를 했다. 이는 양측이 서로 협력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추구하고자하는 긍정적인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승불교 양우중은 재가 불자들의 수행을 돕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이며, 삼방사는 대승불교 양우중이 재가불자들의 참선과 명성수행을 위해 완주 경전면 지역에 건립한 사찰이다. /완주=염재복 기자

전주시, 국내 최대 여행박람회서 전주관광홍보관 운영

전주시가 국내 최대 규모의 여행박람회에 참가해 수도권 관광객 공략에 나선다.

시는 2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4일간 서울특별시 양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열리는 ‘2024 내나라여행박람회’에 참가해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주관한 이번 박람회

는 국내 최대 규모 여행 전문 박람회로, 올해는 200여 기관·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약 440개 부스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박람회에서는 체류형 관광 집중홍보 특별관이 마련돼 야간관광 특화도시와 워케이션(workation) 등을 집중 조명한다.

시는 박람회에서 방문객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 부스 내 전주관광 영상

콘텐츠를 선보이고, 체류형 관광 관련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상담을 통해 관광거점도시 전주를 ‘하루 더 머무르고 싶은 여행지’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비즈니스(visit jeonju)’ SNS 팔로워 이벤트와 전주관광 퀴즈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의 많은 참여를 이끌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박람회에서 야간관광 특화도시 특별관에도 참가해 여행 관계자 및 관람객 등을 대상으로 전주만의 차별화된 야간관광 매력을 전달하고, 팜북예술공장과 풍패지관

(전주객사) 일원의 야간관광 명소를 소개하는 등 전주를 ‘체류형 관광도시’로 적극 홍보한다.

이외에도 시는 ‘2023 관광거점도시 최우수 지역관광추진조직(DMO)’으로 선정돼 ‘DMO 홍보관’에도 참가해 2023 전주 DMO 추진 사업 중 하나인 ‘전주맛집투어패스’ 향토 디지털 시식회를 진행하고, 전주 관광 인스타그램 팔로우 인증 이벤트를 통해 ‘페달투어’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는 등 DMO 육성지원사업 성과도 홍보하게 된다. /김욱기기자

전주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저감 기술지원 신청 접수

전주시가 대기 중으로 확산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한 배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저감 기술지원에 나선다.

시는 오는 4월 4일까지 유증기 회수설비가 설치된 주유소를 대상으로 회수설비에 대한 이해·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저감 기술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술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기간 내에 전주시 환경위생과로 팩스(063-281-2613) 또는 전자우편(KIDY04789@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 중 지난 2년간 유증기 회수설비 개선 대상이었던 사업장과 전년도 휘발유 판매량이 높은 사업장을 우선 후보로 선발한 후 한국환경공단과 협의를 거쳐 최종 기술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김욱기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